

『성전』에 나타난 허버트의 성화(聖化)과정

신 현 호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신앙의 갈등
- III. 신앙의 회복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17세기 영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수와 개혁, 봉건 귀족과 해외 식민지 확장 및 해외 무역 성장에 따른 신흥 소지주 세력의 성장, 과학과 종교 간의 혼란과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독교 인본주의와 회의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등이 어우러져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던 시기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무질서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희구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 줄 수 있는 대상을 갈구하였다. 중세적인 전통과 인습이 아직 남아있던 이 시기에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성직자들의 설교 모음집과 신앙서적 및 종교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양산되며 기독교적 저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Low 22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와 연관된 많은 종교시들이 쓰여 지고 읽혀졌다.

조지 허버트(George Herbert 1593-1633)는 영국시의 고전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종교 시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시적영감을 자신의 종교적 체험에서 얻어 와 작품 속에 진솔하게 투영하며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허버트만큼 복음에 근

거하고 성경에 철저하며 정직하고 심오한 시인은 드물다. 그는 자신의 시적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미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바칠 것이라고 서약한 허버트는 세속적인 명성과 영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죽는 날까지 성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하고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다(Summers 178).

자신의 신앙을 작품의 골격으로 삼고 있는 허버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 죄악의 심리적 복잡성과 이에 다가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그리고 “값없는 구원”(Priceless Salvation)이라는 복음으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황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탐구한다.

영국의 15세기, 16세기의 종교시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얻게 되는 내면의 환희를 나타내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룬 반면에 17세기의 영국 종교시들은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의(懷疑)와 갈등을 포함한 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허버트 또한 17세기 소위 “형이상학과 시인들”(Metaphysical Poets) 중에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던 당시 종교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세속적인 성공과 종교적인 열정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을 허버트는 『성전』(The Temple)에 수록된 시편들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영적갈등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성전』에 수록된 여러 시들은 허버트가 스스로 경험했던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많은 정신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Low 411). 허버트가 보여주는 영적 갈등과 고뇌는 세속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순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이다. 그리고 허버트는 그러한 투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고백으로 표현한다. 허버트는 자신의 개인적 신앙 체험을 평범하고 쉬운 인습적인 구어체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신앙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버트의 시에는 세속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에게 바치는 온전한 순종의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나타난다(Daiches 371). 허버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영적 불모성에 대해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

러나 허버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하며 고뇌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영적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영적 갈등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는 허버트는 갈등의 끝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성전』에 수록된 시들을 통해 허버트는 잘 훈련된 지적인 정신의 기지와 독창성을 사용하여 인간의 죄에 대한 성찰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전』의 시들은 “허버트 개인의 삶과 일치하며 모든 인간의 영적 삶을 대표하고 있다” (Benet 3). 허버트가 겪는 신앙 체험은 그의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성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전』에 수록된 시들은 교회 및 교회의식을 주제로 다룬 몇 편의 시와 성경을 다룬 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가 허버트가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정립과정에서 일어난 회의와 좌절과 반항 그리고 순종과 찬양과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시집은 허버트가 영적 삶을 파고 들어가는 데 맞춰서 시를 배열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허버트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지속되는 많은 영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런 갈등을 겪는 동안에 그가 자신의 의지를 주 예수의 뜻에 순종시키는 과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영적회복과 자유에 대해 진솔하게 묘사하고 있다.

허버트는 조용하고 내적이며 섬세하고 우아하고 단정하다. 기독교적인 표상과 이미저리가 풍부한 위대한 전통 내에서 시를 쓰면서 그는 색다른 표현 기법과 일상의 평이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데 기쁨을 느낀다. 기독교적 전통에 따른 형식과 심상이 농후한 그의 시들은 “기상”(conceit)과 일상생활 주변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조용함과 경건함과 미적 감상 등을 기독교적 주제와 함께 담아내고 있다.

1633년에 출판된 『성전』에 대해 서머즈(Joseph H. Summers)가 『조지 허버트: 그의 종교와 예술』(George Herbert: His Religion and Art)에서 당대의 구체적인 종교적 상황과 연관 지어 연구한 이래로 『성전』에 나타난 시를

통한 허버트 연구는 17세기 영국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었다. 마르쯔(Louis L. Martz)는 17세기 영국에 당시 유럽에서 예수회(Jesuit)를 중심으로 명상이 영향을 주어 종교시들이 발달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허버트의 『성전』이 “영적인 갈등”과 “확신의 상태”와 같은 명상의 단계를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르왈스키(Barbara K. Lewalsky)는 『성전』을 한 개인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보고 『성전』에 수록된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부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의 획득”을 인정하고 수용해 나가는 개인의 갈등, 점진적인 성화, 확신의 획득과 같은 개인의 영적 발전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스트라이어(Richard Strier)와 비이스(Gene Edward Veith, Jr)는 『성전』에서 구현되는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의 기독교 교리에 초점을 맞추어 비이스는 허버트의 교리의 핵심이 칼빈주의임을 주장하는 반면, 스트라이어는 루터주의임을 강조하면서 허버트의 시를 통해 각각의 교리를 확인해 간다. 당시 종교생활이 신학 중심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구체적인 교회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 할 때 『성전』을 신학적 교리에 한정하여 다루는 것은 허버트가 시를 쓰는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전』이 허버트의 개인적인 영적인 기록이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 허버트가 『성전』에 나타난 시를 통해 보여준 그의 신앙의 영적 갈등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허버트의 신앙의 성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전』에서 허버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몇 편의 시를 분석하면서 허버트 자신이 체험한 영혼의 갈등과 그 극복과정을 살펴보고 허버트가 이를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루면서 그가 인간이 경험하는 영적 갈등의 보편적인 근원과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영적 회복을 이루었는지 고찰하고자한다.

II. 신앙의 갈등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욕망 때문에 인생에게 허용된 육체적 욕구

와 정신적 욕구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망과 이를 억누르고 영혼의 소리를 따르려는 이성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허버트의 갈등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의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간의 영적 갈등으로 세속적인 욕망과 성직자의 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Knights 121). 이러한 갈등의 과정 속에 허버트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는 동시에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혼의 고뇌가 깊어간다.

허버트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허버트가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에서 느꼈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고뇌 1」 (“Affliction I”)에서 화자인 시인은 자신의 노력과 자부심에 충만해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두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처음에 당신은 저에게 우유와 단맛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나의 길이 있었었습니다.
 나의 나날들은 꽃과 행복으로 훌쩍려져 있었었습니다.
 오월 이외에 어떠한 달도 없었습니다.

At first thou gav'st me milk and sweetness,
 I had my wish and way:
 My days were strawed with flowers and happiness,
 There was no month but May. ¹⁾

화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련과 고통은 전혀 없는 행복하고 달콤한 날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 화자는 “우유”, “꽃” 그리고 “오월”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삶의 여정이 꽃처럼 화려하고 우유처럼 신선하며 오월의 푸르고 화창함같이

1) Cesare, Mario A. Ed. *George Herbert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8. p. 20. 앞으로 시의 인용은 이 책에서 인용하며 인용 후 페이지만 명기한다.

싱그런 날들로 이루어 질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허버트의 이미지는 평범한 것이며 허버트는 교회당의 가구, 꽃, 나무, 약초, 벌, 음악, 특히 그리스도에게 진 인간의 큰 빛을 주목하게 하는 이미지를 즐겨 사용한다(Ford 143). 허버트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일상적이고 자신의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허버트는 캠브리지 대학교(Cambridge University)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를 20세에 졸업하고 1620년에 캠브리지대학교의 공보관(Public Orator)으로 선임되었다. 캠브리지대학교 공보관은 품위와 위엄을 지닌 지위를 가진 자리로써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로 당시 정계에 중책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쳐 갔다. 제임스 1세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던 허버트가 결혼하기 전 1628년까지 성직자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버트는 자신의 심오한 지식과 우아한 품격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의 칭송으로 인해 세속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Bennet 55).

허버트는 4연으로 구성된 「진주」(“The Pearl”)에서 자신이 성직자로서가 아니라 세속적 성공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학문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내 수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I know the ways of Learning;.....
 I know the ways of Honour.....
 I know the ways of Pleasure.....
 I know all these, and have them in my hand;.....(38-39)

허버트는 “야망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장 고통 받을 수 있는 유혹”이라고 말한다(Slater 219 재인용). 학문과 명예와 세상 즐거움을 가

질 수 있었던 위치에 오른 젊은 나이의 허버트는 세속적 욕망과 세상의 모든 소유를 팔아 좋은 진주 하나를 구입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 사이에서 갈등한다.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과 성직의 길에서 허버트는 성직자의 길을 택하지만 “그 택함은 스스로의 결단보다는 자신의 병약함에 따른 선택”이었다(Knights 244).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기계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생각 속에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자신의 정체성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Buber 2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적 욕망과 필요 때문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실천적 행위를 통해 섬겨야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실천이 뒤따르지 못할 때 신앙인은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는 것이다.

허버트는 계속적인 건강의 악화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직업으로 인해 삶의 목적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상실로 정신적으로 낙담하기에 이른다(Knights 423). 허버트의 세속적인 출세에 대한 야망들과 자기중심적인 자만심들은 자신의 성취욕과 연결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반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이러한 허버트의 모습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선악과를 따 먹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했던 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시작되었으나 인간은 그 구원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굳건한 집 한 채를 지어 주었지만 인간은 그 집을 세상의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변조하여 자신들의 세상 지식과 즐거움을 향유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 준 집은 “내부의 벽과 기둥이 갈라지고 파괴되어”(the inward walls and sommers cleft and tore 36)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운명에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게 되었다. 쾌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우선하였다. 결국 이러한 삶은 죄로 연결되고 “죄의 값은 사망”(로마서 6장 23절)이므로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죄는 사망과 견고히 결합해
그 가옥을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들에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잡고
이전 보다 훌륭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Then Sin combined with Death in a firm band
To raze the building to the very floor:
Which they effected, none could them withstand.
But Love and Grace took Glory by the hand,
And built a brave: Palace than before. (36)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준 거주지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죄”와 “사망”이 그 곳에 안주하도록 자신들의 터전을 무기력하게 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유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을 인간을 향해 쏟아 부음으로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방지하지 않고 처음 지은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다.

「인간」(“Man”)에서 허버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서 최상의 걸작(傑作)으로 보고 건축물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시에서 허버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어느 만물보다 훌륭하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거주하실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른바 “존재의 고리”(the chain of being) 사상과 소우주와 대우주는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이용하고 있는 이 시에서, 인간은 실로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경이로운 존재이다(최중수 119).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성과 언어를 홀로 지니며 고결한 정신과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뛰어난 점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드러낼 수 있지만 언제나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완전함은 조건적인 것이다. 따라서 죄에 빠진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점점 쇠퇴해져가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장 28절) 명령받은 인간은

그 본분을 잃고 마치 “짐승”(beast)과 같은 신분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아무도 하나의 굳건한 처소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인간)가 그 안에 살려고 합니다.
어떤 집이 그 곳에 있었던 것보다 더욱 굳건하고
아니면 인간보다 더 웅장하겠습니까? 그의 창조에 비하면
모든 만물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그루 나무이고 더욱 많은 열매를 맺으니
한 마리의 짐승이지만 그 이상이며 그 보다 더한 것일 겁니다.
이성과 말은 인간만의 소유물입니다.
앵무새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앵무새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진 것입니다.

My God, I heard this day
That none doth build a stately habitation,
But he that means to dwell therein.
What house more stately has there been,
Or can be, than is Man? to whose creation
All things are in decay.

For Man is ev'ry thing,
And more: he is a tree, yet bears more fruit;
A beast, yet, is or should be more:
Reason and speech we only bring.
Parrots may thank us, if they are not mute,
They go upon the score. (40)

허버트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버림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인간이 원래의 지으심 바를 상실해 가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다. 허버트는 인간을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와 단순한 생명체인 “짐승”과 대비하여 이성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할 아는 뛰어난 피조물로 묘사하고 있다.

허버트는 인간의 타락이 가지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허버트에게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인간이 타락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활절 날개』(“Easter Wings”)는 시의 형태가 날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시각적 상형시”(hieroglyph poem)로서 인간의 타락과 회복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허버트의 시적 기법 가운데 다른 시인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시의 모형(模型)에 있다. 허버트의 시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시들이 많은데, 이는 시의 형태를 통해 시인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려 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유익하며 시의 시각적 효과를 더해준다.

『부활절 날개』는 날개의 형태를 한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의 모형은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양을 취하면서 첫째 연 7행에 나오는 종달새와 관련을 맺으며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러가 하늘로 비상(飛上)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이 시의 모형은 인간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한 십자가의 X자 모습을 나타낸다. 허버트는 상형시를 자신의 신앙 갈등을 해소하거나 증폭시킬 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형시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비평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지만 『부활절 날개』는 성공을 거둔 시로 평가 받고 있다. 베네트(Joan Bennett)는 “시의 모양이 점점 작아졌다가 커지는 것은 종달새의 노래와 비상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63). 이 시의 모양과 주제의 상관관계가 적절히 부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부활절 날개』에서 화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음을 고백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리스도의 날개에 접붙여져야만 인간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없이 인간의 구원과 거듭남은 성취될 수 없다는 기독교 구원 사상이 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

넉넉하고 풍요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던 주님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모습을 상실하고
더욱 더 타락하여
마침내 인간은 가장
비참해 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종달새들처럼 조화된 선율로
오늘 당신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면 타락이 더욱 높이 나를 날아오르게 할 것 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슬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병과 수치심으로
당신은 죄를 벌하셨나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여위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제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어
오늘 당신의 승리를 느끼게 하소서
왜냐하면 상한 내 날개를 당신 날개에 접붙이면
고통이 나를 더 멀리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Lord, who createdst man in wealth and store,
Though foolishly he lost the same,
Decaying more and more,
Till he became
Most poore:
With thee

Oh let me rise
As larks, harmoniously,
And sing this day thy victories:
Then shall the fall further the flight in me.

My tender age in sorrow did begin:
And still with sicknesses and shame
Thou didst so punish sin,
That I became
Most thin.
With thee
Let me combine,
And feel this day thy victory:
For, if I imp my wing on thine
Affliction shall advance the flight in me. (16-17)

이 시의 1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다.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고통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간을 인도하기 때문에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향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머즈는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타락을 “행복한 타락”(Felix Culpa)이라고 규정한다(142).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은총의 요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은 더 강화되었다. 타락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은 더 풍성해야 했다. 궁극적으로 타락에 의한 인간의 손실은 오히려 인간에게 이득이 되었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인간 본성의 순수성보다 더 많은 은총을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불행에 작용하여 아담이 거주했던 낙원보다 더 행복한 천국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인

간을 회복시킨다.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기초로 이 시의 화자는 타락을 구원의 디딤돌로 삼고 비참함을 영예로운 상태로 전환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허버트의 시에는 이러한 역설이 자주 나타난다. 역설의 기법은 “형이상학과 시인”들의 주요한 특징이며 허버트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설을 자신의 시에 많이 인용하고 있다.

시의 화자인 허버트는 제 1연의 전반부 5행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아담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 어리석음이나 타락상이나 빈약성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암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봄의 도래를 생각하면서 종달새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종달새는 아침을 나타내는 새인 동시에 높이 비상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새로 유명한 새이며 성직자의 겸손을 암시하기도 한다. 허버트는 “종달새의 이미지를 통해 타락의 깊이에 대응하는 비상의 높이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최중수 90).

제 1연의 전반부는 인류의 보편적 타락을 말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신앙을 결부시킨 반면에 제 2연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부활을 연관시켜 묘사하고 있다. 2연에서 허버트는 자신의 반생을 슬픔과 질병과 수치와 범죄의 과정으로 회고한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온 몸으로 그것을 실감하는 일이다.

허버트는 하나님의 날개를 자신의 상하고 파괴된 날개에 접붙여 새로운 힘을 얻어 하늘로 비상하기를 소원한다. 허버트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아픔을 시인은 사냥하는 매의 날개에 비유”하고 있다(강엽 251). 허버트는 사냥하는 매의 깃털이 빠지면 그 매가 잘 날을 수 있도록 다른 깃털을 이식한다는 형이상학적 기상을 사용하여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이나 고통처럼 부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됨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도 죄의

그들 아래에서는 충분히 자유를 만끽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 허버트는 인간을 짓누르는 죄의 속성에 대해 신랄하게 말한다.

누가 죄를 알 것이며 그를 올리브산으로
환원시킬 것이며; 고통으로 일그러져,
그의 머리카락, 피부, 옷을 온통 피로 물들인
그 사람을 그는 거기서 볼 것인가
죄는 압착기이며 걸쇠인데, 그것이 모든 혈관을 통해
그의 잔인한 먹이를 사냥하려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Who would know Sin, let him repair
Unto mount Olivet; there shall he see
A man so wrung with pains, that all his hair,
His skin, his garments bloody be.
Sin is that press and vice, which forceth pain
To hunt his cruel food through ev'ry vein. (13)

죄는 악행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강요한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피할 수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그의 살이 찢기고 의복이 피로 물들었음을 알아야 한다. 고뇌에 찬 허버트는 예수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임을 고백한다.

사랑을 모른 자가 있거든, 그를 시켜
십자가상에서 창에 찢려 흘러나온 피를
맛보게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맛 본 적이 있는 가를 말하게 하라
사랑은 감미롭고 가장 거룩한 액체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피라고 여기고 나는 포도주로 느낀다.

Who knows not Love, let him assay
And taste that juice, which on the cross a pike

Did set again abroach: then let him say
 If ever he did taste the like.
 Love in that liquour sweet and most divine,
 Which my God feels as blood; but I, as wine. (13-1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허버트는 인간 모두가 죄 인임을 말하고 사랑의 전제조건이 죄라는 역설을 제시한다. 허버트는 사랑을 감미로운 액체에 비유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기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점진적이며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허버트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반항과 갈등이 있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야망의 달콤함과 세속의 부귀영화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갈등과 결단의 기록이며 세속적 성공과 성직자의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며 고뇌하는 가운데 성숙해져 간 신앙의 산물이다(Knights 245). 허버트의 갈등과 반항은 하나님께 진정어린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목걸이』(“The Collar”)는 허버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 자신을 속박하는 종교적인 율법과 자유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거칠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격정적인 모습을 시행 길이의 조절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나는 성찬대를 치면서 외쳤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는 밖으로 나가야겠다.
 무엇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한숨만 짓고 애만 태우란 말인가?
 나의 진로와 인생은 자유롭다. 큰 길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느슨하고, 창고처럼 풍성하다.
 나는 언제나 시중만 들어야 하는가?
 나를 피 흘리게 하는 가시를 제외하고 내게는

수확이 없단 말인가? 내가 잃은 모든 것을
 강장제 열매로 되찾을 수는 없단 말인가?
 분명히 술이 있었다.
 나의 한숨이 그것을 마르게 하기 전에. 그리고 곡식이 있었다.
 나의 눈물이 그것을 물속에 침몰시키기 전에는.

.

그러나 내가 고향치고, 말끝마다 거칠어지고
 사나워질 때 나는 “애야”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여”하고 응답하였다.

I struck the board and cried, No more;
 I will abroad.
 What, shall I ever sigh and pine?
 My lines and life are free, free as the road,
 Loose as the wind, as large as store.
 Shall I be still in suit?
 Have I no harvest but a thorn
 To let me bleed, and not restore
 What I have lost with cordial fruit?
 Sure there was wine
 Before my sighs did dry it; there was corn
 Before my tears did drown it.

.

But as I raved and grew more fierce and wild
 At every word,
 Me thoughts I heard one calling, *Child!*
 And I replied, *My Lord.* (55-56)

허버트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나 성직자가 된 이후에도 세속적인

출세를 꿈꾸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호수처럼 고요한 그의 마음속에도 젊은이로서, 인간으로서 걱정은 심하게 꿈틀대었다. 이러한 허버트의 정직한 고백이 있기에 그의 시들은 감동적인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시중드는 자신의 모습을 참지 못해 “성찬대”를 손으로 치고 고함을 지르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시의 화자 허버트는 하나님께 예속된 삶을 버리고 마차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절규한다. “성찬대”를 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이 시의 제목인 「목걸이」(“The Collar”)는 성직자나 성도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내해야 하는 구속과 차단을 암시하며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collar는 사제가 입는 옷의 칼라를 의미하기도 하며 같은 발음을 가진 “choler(짜증, 분통)를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최종수 87). 그리스도인에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짜증을 주며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인 격동과 어지러운 흥분 상태는 이 시를 구성하는 형식 속에 반영되어 있다.

36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연의 구분 없이 시행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화자가 격양된 감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괴로움과 불평이다. 질문, 진술, 명령 등 다양한 형식이 혼합된 시행을 통해 이어지는 화자의 불평은 시행의 길이와 운율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허버트는 시의 형식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며 화자의 안정되지 않은 감정을 노출시켜 시의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전통적인 시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날마다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거듭남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눈물과 한숨과 양심이 상투투성이로 가득한 삶이 아닐 수 없다. 세속적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교회가 제정한 제도와 규율에 얽매이고 모래 밧줄처럼 보이는 연약하고 일시적인 교리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참 자유를 상실하였고 인간의 자만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다. 그것은 인간 타락의 상징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간 구원의 상징이다. 타락과

구원의 개념이 내면에서 싹트게 됨에 따라 허버트는 자신을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고 깊은 불신의 늪에 빠졌다가 순종이라는 미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갈등을 승화시킨다. “애야!”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은 인간의 모든 불평과 불만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히브리서 1장 5절)라고 인정해 주는 음성은 소망과 용기를 주며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말이다. 허버트는 자신의 모든 불만과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 녹듯이 해소되는 신앙적 경험을 이 시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허버트의 순종과 확신은 정신적 갈등의 산물이며 영적인 고뇌의 터널을 지나 얻어진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와 영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후 터득해서 얻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것이다.

Ⅲ. 신앙의 회복

허버트의 속죄는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더 이상 하나님이 내린 형벌로 보지 않는 데 있다. 갈등을 순종으로 승화시킨 그는 자신의 고뇌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야기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한다. 처음에 허버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보다 고통을 주어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체험하고 난 후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여 인간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려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허버트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구원하려 하지만 인간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수난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한다.

「속죄」(“Redemption”)에서 허버트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형식을 빌어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간의 관계를 조각인과 지주의 관계로 대치시키면서 구원에 대한 성도의 청원을 탐색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14행의 짧은 시속에 간결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됨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부유한 영주의 소작인이면서
 번영하지 못했기에, 나는 대답하기로 마음먹었기에
 그 분에게 소원했다. 먼저 옛날 토지를 취소하고
 새로운 임대와 작은 토지를 달라고,
 하늘에 있는 그의 영지(領地)에서 나는 그 분을 찾았다.
 그 곳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그 분이 최근에
 그가 오래 전 지상에 값비싸게 사두었던
 땅을 손에 넣기 위해 떠났다고
 나는 즉시 되돌아 왔다. 그리고 그 분의 위대한 탄생을 알고서,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찾았다.
 도시에서, 극장에서, 정원에서, 공원과 궁정에서.
 드디어 나는 들었다. 도적들과 살인자들의
 거칠게 떠들어 대는 소리와 희희낙락하는 소리를; 나는 거기서 그 분을 보았다.
 그 분은 즉시 내 청원이 허락 되었느니라, 말씀하시곤 돌아가셨다.

Having been tenant long to a rich Lord,
 Not thriving, I resolved to be bold,
 And make a suit unto him to afford
 A new small-rented lease and cancel th' old.
 In Heaven at his manor I him sought.
 They told me there that he was lately gone
 About some land which he had dearly bought
 Long since on earth, to take possession,
 I straight returned, and knowing his great birth,
 Sought him accordingly in great resorts,
 In cities, theaters, gardens, parks, and courts.
 At length I heard a ragged noise and mirth
 Of thieves and murderers; there I him espied,
 Who straight *Your suit is granted* said, and died. (14-15)

성직자였던 허버트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진리와 교훈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인간의 구원을 토지 임대 계약 관계로 묘사

하고 있는 이 시는 구약시대에 엄매인 율법적인 구원관을 배격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a man is justified by faith)(로마서 3장 28절)라는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에서 “부유한 영주”(rich Lord)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가난한 “소작인”(tenant)은 기독교 신자를 가리킨다. “오랫동안”(long)이란 말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몰랐던 어리석은 인간들의 긴 종교적 탐색을 함축하고 있다. “옛날 토지”(th’ old)란 형식과 규율이 엄격하고,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까다로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암시하며, “새로운 임대와 작은 토지”(a new small-rented lease)란 단순히 예수께로 나아가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토지를 버리고 새로운 토지를 빌려줄 것을 청원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계약인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인 “은혜의 계약”(Covenant of Grace)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므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이 지칭했던 새로운 은혜시대의 도래를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상적인 회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는 소작인이 부유한 지주에게 말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작인”, “부유한 영주”, “도시”(cities), “극장”(theater), “정원”(gardens), “거칠게 떠들어 대는 소리”(ragged noise), “희희낙락”(mirth) 등 당시 일반사람들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허버트는 시적인 단어를 피하고 자신이 사역하던 시골 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를 시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다(Alvarez 76). 허버트는 평범하고 쉬운 인습적인 구어체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종교시에서 지향하는 단순성을 나타낸다.

이 시의 6행에서 11행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12행과 13행은 그리스도를 끌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살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양쪽에 묶여 있던 강도들 사이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난한 소작인인 기독교 신자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가 이 시의 마지막 행에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예수가 달려있던 옆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중 하나가 예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을 청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장 43절)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행의 “너의 청원이 허락 되었느니라”(Your suit is granted)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한마디로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완전한 속죄를 받는다. 이 말은 1행에서 13행까지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한 때부터 그를 찾아 낸 순간까지의 탐색이 길고 복잡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허버트의 이러한 시적 기법은 예수의 은총과 속죄의 원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매우 적절하다. “죽으셨다”라는 이 시의 짧은 결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과 휴식과 평화는 십자가의 수난과 그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수난과 속죄의 심상이 「순례」(“The Pilgrimage”)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나의 언덕은 더 멀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뛰어 나갔다.
그러나 한 소리를 들었다.
내가 막 나가려 할 때에, 이 길을 간 어떠한 자도
산 자가 없다. 나는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거친 여행 뒤에 오는 죽음은 아름답고
그리고 안식이 있다고.

My hill was further: so I flung away,
Yet heard a cry
Just as I went, None goes that way
And lives: If that be all said I,
After so foul a journey death is fair,
And but a chair. (54)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수난과 고통은 때로는 하늘의 위안으로 바뀐다. 순례자가 가는 언덕은 저 멀리 있고 그 곳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도착할 수 있다. 허버트가 이 시에서 암시하는 진정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이다. 이 땅의 것은 한시적 가치를 지닐 뿐이며 이 땅에서의 수고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곧 다가오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례자가 안식처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죽음은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에 보혈을 부어넣은 이후에 그 죽음은 아름답고 기쁨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듯 죽을 수 있다. 이 땅의 순례자인 그리스도들은 순례의 종착지인 죽음 뒤에 더 나은 곳으로 자신들이 나아가는 것을 확신한다. 시 마지막 행의 “a chair”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뒤에 영원히 안식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처소를 암시한다.

허버트는 「죽음」(“Death”)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 “정직하고 충실한 무덤”(an honest faithful grave)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심판일”(Doomsday)에 새로운 옷을 입고 “모든 뼈들은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게 될 것이다”(all thy bones with beauty shall be clad)라고 묘사하고 있다(67). 이제 구원을 받은 인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타락과 그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죄인이 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베풀어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인간의 고뇌에 친히 동참하시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이 겪는 불행을 함께 겪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염원한다. 허버트는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보고 「은총」(“Grace”)이란 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the dew drop from above)로 묘사한다(28). 이슬이 초목에 생기를 주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시들은 영혼을 축축이 적시어 생명을 주고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

죽음과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인간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와 투쟁하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가려 노력하면서 허버트는 점차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해 간다. 「창문」(“The Windows”)에서 허버트는 자신이 가벼운 흔들림에도 “쉽게 깨져버리는 유리조각”(brittle crazy glass) 같은 존재였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유리조각도 거기에 열을 가해 단련시켜 채색유리로 변화시키면 본래의 연약한 성질이 아름다운 성질로 변화하듯, 허버트 자신도 시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 시에서 허버트는 인간과 “쉽게 깨져버리는 유리조각”을 병치하여 둘 사이에 아무런 유추관계도 없는 듯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리조각의 이미지를 창문으로 발전시키고 창문은 채색창의 이미지로 발전시켜, 성직자의 헌신적인 생활과 연결시켜 나가는 기발한 착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 III」(“Love III”)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 묘사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성만찬의 의미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씻어 낸다는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허버트는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오랜 갈등과 고뇌를 거치면서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drama)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사랑은 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내 영혼은 뒤로 물러섰다.
 먼지와 죄의 허물로 인하여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꾸물거리는 것을 보고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상냥하게 물었다,
 혹시 나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저는 여기에 들어갈 만한 손님 자격이” 하고 대답하자
 사랑은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손님이라”고.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아 귀하신 분이여,
 저는 당신을 바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답하기를

“나 말고 누가 당신의 눈을 만들었나요?”

“진리이신 주여, 그러나 저는 눈을 망쳐 놓았습니다. 내 수치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말한다, “누가 그 멍에를 졌는지 당신은 모르느냐?”고

“내 님이여, 그렇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 앉아서 내 살을 먹어라.”하고 사랑은 말한다.

그래서 나는 앉아 먹었다.

Love bade me welcome: yet my soul drew back,
Guilty of dust and sin.

But quick-eyed Love, observing me grow slack
From my first entrance in,

Drew nearer to me, sweetly questioning,
If I lacked any thing.

“A guest,” I answered, “worthy to be here” :

Love said, “You shall be he.”

“I, the unkind, ungrateful? Ah my dear,

I cannot look on thee.”

Love took my hand, and smiling did reply,

“Who made the eyes but I?”

“Truth Lord, but I have marr’d them: let my shame

Go where it doth deserve.”

“And know you not,” says Love, “who bore the blame?”

“My dear, then I will serve.”

“You must sit down,” says Love, “and taste my meat:”

So I did sit and eat. (69)

이 시는 『성전』 맨 마지막에 수록된 시로 허버트의 신앙 편력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시로서 주인과 손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극적인 스토리로 전개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 받은 인간이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 때문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겸손한 태도와 그런 인간을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따뜻하게 대접하여 결국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사랑”이란 호칭으로 의인화 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평이한 필치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1연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사랑”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나의 영혼”은 뒤로 물러선다. 그 이유는 죄의 허물로 나의 영혼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뇌하고 갈등하고 방황했던 이유는 죄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나 자신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능하다. “사랑”은 죄로 인해 기운 빠져 있는 “나”(I)에게 상냥하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하고 물어 본다. 그리하여 2연에서 손님자격이 없다고 주저하는 “나”에게 “사랑”은 적극적인 환대의 행동을 보인다. 이에 “나”는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하여 “사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낮은 데로 향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나”는 “귀하신 분”의 고귀한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지만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감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나”에게 “사랑”은 더욱 강하게 다가와 “나 말고 누가 당신의 눈을 만들었나요?” 하고 반문한다.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제공한 것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에 3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눈”(eye)을 내가 훼손하였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허버트는 “eye”와 2연 마지막 행의 눈을 만든 “I”를 “말재간”(pun)으로 활용하여 “눈”을 훼손시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훼손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사랑”에게 마땅한 수치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사랑”은 훼손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나를 설득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랑의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응답의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전제는 “내 살을 먹으라”는 명

령에 대한 순종이다. 성만찬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때 구원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허버트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조되었던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시는 낮고 조용한 어조로 시작하다가 9행과 10행에서 화자의 감정이 절정에 도달하였을 때 “나”인 시인의 감정은 통렬하여 긴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말에서 “그래서 나는 앉아서 먹었다.”(So I did sit and eat)으로 단음절로 구성된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허버트는 점차적으로 감정을 축적하여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한 뒤 마지막에 긴장을 이완시켜 평온에 도달하는 시의 구조 형태를 통해 시의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베네트는 이 시에 나타난 허버트의 시적 분위기를 “피리미드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Bennett 67). 이 시의 1행과 18행을 피리미드 밑바닥 두 점에 위치시키고 그 정점에 자신의 불만스러운 모습에 대한 외침인 9행과 10행을 위치시키면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인간을 밑에서 바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이 시에 나타난 허버트의 자기 비하와 갈등, 자기 분열은 허버트의 시가 근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꽃」(“The Flower”)에서 허버트는 꽃을 소재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신앙에 대한 묵상을 표현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하듯 다시 돌아온 봄날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으로 부터의 치유, 다시 시를 쓸 수 있는 창작력의 회복, 역경과 갈등과 시련을 경험한 뒤에 얻게 된 신앙의 확립, 믿음의 각성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등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되새기며 자신의 불성실을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불신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허버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간다.

사랑의 주여, 이것들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변하기 쉬운 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깊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영주할 수 있는 화원을 마련해 주십니다.

These are thy Wonders, *Lord of love,*

To make us see we are but flowers that glide:
Which when we once can find and prove,
Thou hast a garden for us, where to bide. (60)

죄인을 반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허하게 자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생활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과 구속의 원리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난해한 신학의 학설 논쟁이나 엄숙하고 화려한 의식이나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는 사업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진보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을 병들고 때 묻고 괴로워하는 개인의 심령을 반가이 맞이하여 치유하는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허버트가 일생동안 고뇌하고 갈등하며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삶과 시의 결론인 것이다. 허버트는 기독교의 진리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한일서 4장 8절)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부여한 시적 재능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IV. 나가는 말

허버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시인으로서 자신의 영적 갈등의 고통과 마침내 갈등을 극복하고 신앙의 회복과 승리를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다.

『성전』에서 허버트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 갈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자신이 온전히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완전한 자유를 묘사하고 있다. 허버트의 성화는 영적 갈등과 고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찬미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허버트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 당시 기독교 인본주의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가치와 섭리를 더 중시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작품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Mahood 30).

허버트는 초기에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과 성직에 따른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갈망 사이에 영적 갈등과 고뇌를 겪게 된다. 허버트는 기성사회의 도덕과 윤리 및 규범에 견딜 수 없어 한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 행위의 지침이 되는 교리와 원리의 엄격함에 좌절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못해 받게 되는 양심의 가책과 죄로 인한 내적 변민에 절규하며 괴로워한다. 세속적 자아와 종교적 자아인식의 충돌로 야기된 갈등은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허버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허버트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이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갈등은 하나님을 향한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갈등에서 오는 고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각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음을 허버트는 깨닫게 된다. 허버트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만이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허버트는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신앙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영적 투쟁을 통해 성숙해 짐을 다시 일깨어 주고 있다. 신앙생활은 일정한 틀 속에서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신앙의 성숙과정에서 갈등하며 고뇌하는 동시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하여 이전 보다 영화롭고 은혜로운 상태로 회복시킨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삶에서 실현하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

인 용 문 헌

- 강엽. 「조지 허버트의 신앙과 모형시」. 『밀턴연구』 12. 2. 2002. 247~265
- 최종수. 『영문학사에 빛나는 신앙 시인의 이해』.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Alvarez, Al. *The School of Donne*. New York: Pantheon Books, 1961.
- Benet, Diana. *Secretary of Praise: The Poetic Vocation of George Herbe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Bennett, Joan. *Five Metaphysical Po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 Buber, Martin. *I and Thou*.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9.
- Daiches, David.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70.
- Dicesare, Mario A. Ed. *George Herbert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8.
- Ford, Boris, Ed.. *From Donne to Marvell: The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London: Penguin Books, 1973.
- Knights, L. C.. *Explorations: Essays in Criticism Mainly on the Literature of the Seventeenth Centu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4.
- Lewalski, Barbara Kiefer. *Protestant Poetics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Lyric*.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1979.
- Low, Anthony. "Metaphysical Poets & Devotional Poets." *George Herbert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Ed. Mario A. Dicesa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8. 221~232.
- Mahood, M. M. *Poetry and Humanism*. New York: Norton & Company, 1970.
- Martz, Louis L. *The Poetry of Meditation: A Study of English Religious Literature of the Seven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P, 1954
- Slater, Ann Pastermark, Ed.. *George Herbert: The Complete English*

Works. New York: Everyman' s Library, 1995.

Strier, Richard. *Love Known: Theology and Experience in George Herbert's Poetry*. Chicago and London: Chicago UP, 1983.

Summers, Joseph H. *George Herbert: His Religion and Art*. Cambridge, MA: Harvard UP, 1954.

Veith, Gene Edward Jr. *Reformation Spirituality: The Religion of George Herbert*.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5.

Abstract

Sanctification of George Herbert in *The Temple*

HyunHo Shin (Baekseok Univ)

George Herbert, one of the metaphysical poets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England, tries to express the real meaning of divine love and grace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his religious conflicts. *The Temple*, the only volume of Herbert's devotional poems, presents his process of religious maturity.

The Temple, recognized by many critics as Herbert's spiritual autobiography, is the record of his religious experience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Herbert deals with the spiritual conflicts between his soul and God, the record of redemption, the restoration of his spiritual relation with God, and obedience to God's calling in *The Temple*.

Herbert describes the steps of his sanctification in *The Temple*. Though he believes in God, Herbert expresses the conflicts between worldly temptation and religious duty. His conflicts caused by afflictions changes him into obedient attitude to the Lord by his religious self-recognition, and then he can enter the road of God's love.

Herbert is finally convinced that God's grace and love always abides with him after he perceives himself as a wretched being, and that Christ's death is a sacrifice for man and His Salvation is secured by only God's grace and love. Herbert accepts God's calling with a humble bow.

Herbert's religious experiences in *The Temple* are not confined within his personal ones but represent those of all Christians and are valuable to those who have no beliefs in God.

In his short life, the evaluation on his poetry is being elevated. The main reason is in his sincere and serious attitude in expressing his religious experience.

He tries to express his experience to help those who had a difficulty in leading a life due to the inner conflicts.

Key Words: George Herbert, *The Temple*, sanctification, conflicts, restoration, God's love.

조지 허버트, 『성전』, 성화, 갈등, 회복, 하나님 사랑

논문접수일: 2014.1.26

심사완료일: 2014.2.16

게재확정일: 2014.2.23

이름: 신 현 호

소속: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주소: 330-70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영어학 전공

이메일: hhshin@bu.ac.kr